

韓國勞動所得分配의 變化行態 및 原因分析*

李重熙**

〈 目 次 〉

I. 序 論	2. 就業構造 變化에 의한 勞動所得分配의 變化效果 分析
II. 勞動所得分配의 變化傾向 分析	IV. 產業組織과 勞動所得分配간의 關係 分析: EPM競爭理論에 의한 分析
1. 長期的 變化傾向: 不變인가 可變인가	1. EPM競爭의 產業組織과 勞動所得分配
2. 長期的 變化傾向의 分析方法	2. EPM競爭理論의 實證分析模型 定立
3. 韓國勞動所得分配의 變化傾向 分析	3. EPM競爭模型에 의한 韓國製造業 勞動所得分配의 實證分析
III. 構造變化에 의한 勞動所得分配의 變化效果 分析	V. 結論 1. 要 約 2. 政策的 示唆點
1. 產業構造 變化에 의한 勞動所得分配의 變化效果 分析	

I. 序 論

흔히 要素分配分 (factor shares) 이라고도 불리우는 相對的 所得分配分 (relative income shares) 의 문제는 Ricardo (1817)에 의하여 “政治經濟學의 가장 重要한 問題”로 간주된 이래 많은 經濟學者들의 研究對象이 되어 왔으며 오래동안 所得分配 研究方法의 중심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所得分配의 문제가 機能的 所得分配 (functional distribution of income) 보다는 人的 所得分配 (personal distribution of income)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機能的 所得分配問題도 要素分配分 보다는 要素價格決定 (factor pricing) 問題中心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相對的 所得分配分에 관한 關心과 研究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있으며, 특히 韓國에서는 이에 관한 基礎研究가 매우 미흡한 실정에 놓여 있다.

그러나 相對的 所得分配分의 문제는 오늘날에도 所得分配 問題의 研究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예로서 主要 先進國의 相對的 所得分配分에 관한 實證과 理論을 概觀한 King과 Regan (1976)은 “相對的 分配分의 問題는, 貧民의 問題처럼, 여전히 우리들과 함께 있다”고 하면서 이 問題에 관한 研究의 必要性을 역설하고 있으며, 所得分配에 관한 저명한 理論家인 Bronfenbrenner (1977)도 이 문제를 “所

* 本 論文은 韓國勞動經濟學會의 88年度 제 2회 연구발표회(88.9.10)에서 발표한 내용을 일부 보완한 것이다.

** 國際大·檀國大 經濟學科 講師.

得分配理論의 10大課題”의 하나로 들고 있다. 또한 Lydall (1979)도 “個人間的 所得分配은 의심할 여지없이 要素所得의 分配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들 두가지 간에 橋梁을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새로운 相對的 所得分配分 理論을 제안하고 있다.

本 論文은 이와 같이 所得分配 問題의 分析에 있어서 오랜 歷史를 갖고 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重要한 課題의 하나로 남아 있는 相對的 所得分配分의 決定과 變化의 問題를 相對的 勞動所得分配分을 중심으로 하여 理論的·實證的으로 分析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本 論文에서는 序論에 이어 II章에서 相對的 勞動所得分配分의 長期的 變化傾向에 關해 理論的·實證的으로 分析하고, III章에서는 產業 및 就業構造의 變化에 의한 勞動所得分配分의 變化效果를 分析하기로 한다. 그리고 IV章에서는 Lydall (1979)이 제안한 ‘EPM競爭’ 理論을 이용하여 韓國製造業의 勞動所得分配分의 變化要因을 實證分析하기로 한다. 끝으로 V章에서는 本 論文의 主要 結論을 要約하고 可能한 範圍內에서 몇가지 政策的 示唆點을 提示하기로 한다.

本 論文에서는 편의상 相對的 勞動所得分配分을 勞動所得分配分으로 약칭하기로 한다.

II. 勞動所得分配分의 變化傾向 分析

오랫동안 많은 經濟學者들이 相對的 所得分配分에 關하여 關心을 표명하고 이의 決定 및 變化要因에 關하여 체계적으로 研究하게 된 가장 큰 動機는 勞動所得分配分이 長期的으로 어떻게 變化할 것인가에 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에 關한 두가지 假說을 概觀하고 그 分析方法을 高찰한 다음 韓國의 勞動所得分配分의 變化傾向을 分析하기로 한다.

1. 長期的 變化傾向: 不變인가 可變인가

相對的 所得分配分의 長期的 變化傾向에 關한: 최초의 假說은 Ricardo (1817)가 주장한 長期的 可變性 (variability) 假說을 들 수 있다. 즉, Ricardo는 그의 主著『政治經濟學 및 課稅의 原理』序文에서 相對的 所得分配分은 社會發展段階에 따라 “根本的으로 相異하다”고 하면서 長期的 可變性 假說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Keynes (1939)는 Kalecki (1938)의 연구결과를 검토한 다음 ‘賃金’ 分配分이 장기적으로 매우 안정적이며 큰 인상을 받고 이를 “약간의 奇蹟”이라고 표현하면서 長期的 不變性 (constancy) 假說을 주장하였다. Schumpeter (1939)도 이러한 현상을

“不可思議”라고 생각하였으며 Robinson (1969)도 이러한 불가사의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가리켜 “理論經濟學의 하나의 不名譽”라고 하였다.¹⁾

또한 Kaldor (1955)도 相對的 所得分配分은 사회발전단계가 상이하더라도 “根本적으로 類似하다.”고 하면서 장기적 불변성 가설을 주장하였다.²⁾ 그 후 Klein과 Kosobud (1961)는 경제성장모형을 정립하면서 常數로 취급할 수 있는 다섯가지의 經濟指標을 “經濟學의 偉大한 比率”이라고 부르면서 여기에 노동소득분배분을 포함시킨 바 있다. 이른바 ‘보울리의 法則’ (Bowley’s Law)으로 알려진 勞動所得分配分의 長期的 不變性 假說은 이에 대해 의문을 표시한 Solow (1958)의 표현대로 “빛의 速度나 近親相姦 禁忌와 같은 自然의 偉大한 常數의 하나”로 간주되는 등 1950년대 중반까지는 거의 절대적으로 신봉되었다.

그러나 ‘보울리의 法則’은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초반에 이루어진 Solow(1958), Kravis(1959), Bronfenbrenner (1960) 등의 實證的·理論的 研究를 계기로 점차 의문시 되기 시작하였다. 즉, Solow는 統計學的 分析手段을 이용하여 불변성가설에 근본적인 의문을 표시하였고, Kravis는 自營所得을 歸屬處理함으로써 勞動所得分配分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였으며, Bronfenbrenner는 勞動所得分配分의 變化가 根本적으로 微微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理論적으로 論證하였다.

그후 1960년대에도 Grant (1963) 등의 일부 反論이 있긴 하였으나 대체로 Kravis 流의 가설을 뒷받침해주는 결과가 많았으며, 1970년대 이후에도 勞動所得分配分의 增加現象이 여러나라에서 관찰됨으로써 ‘보울리의 法則’에 대한 信賴度는 더욱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 參考로 勞動所得分配分이 과연 長期的으로 어떻게 變化하여 왔는지에 관하여 長期間的 資料利用이 可能한 英國과 美國의 경우를 통하여 살펴보자.

<表 1>은 약 110여년간에 걸친 英國의 勞動所得分配分의 變化추이를 ‘賃金’分配分,

1) Schumpeter와 Robinson의 이러한 표현은 Ranadive (1978), p.132에서 재인용.

2) Kaldor (1955, pp.83-84)는 相對的 所得分配分의 不變性 假說 및 이에 관한 研究의 方向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分配分의 決定要因에 관한 어떠한 假說도 그것이 先進 經濟에서 지난 100餘年間に 걸쳐 生産技術, 勞動에 대비한 資本蓄積, 그리고 1人當 實質所得이 현저하게 變化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分配分이 相對적으로 安定的이었음을 설명하는데 성공하지 못하는 한 知的으로 만족스러울 수 없다.”

<表 1>

英國의 勞動所得分配¹⁾ 變化推移, 1860~1973.

연 도	구 분	'임금' 분배분	'피용자보수' 분배분	'광의의노동소득' 분배분 ²⁾
1860 ~ 9		38.7	45.2	..
1870 ~ 9		38.9	45.2	..
1880 ~ 9		38.6	46.2	..
1890 ~ 9		39.5	48.0	..
1900 ~ 9		38.0	47.7	..
1910 ~ 4		34.5	47.3	55.3
1921 ~ 4		38.6	58.5	67.4
1925 ~ 9		37.4	58.1	66.4
1930 ~ 4		37.1	59.3	68.1
1935 ~ 8		37.0	58.9	67.1
1946 ~ 9		39.3	65.3	73.0
1950 ~ 4		39.2	65.3	72.1
1955 ~ 9		39.3	67.0	73.4
1960 ~ 3		37.8	67.4	73.6
1964 ~ 8		..	67.6	73.6
1969 ~ 73		..	68.9	75.6

註:1) 요소비용 표시 국민총생산(GNP at factor cost), 즉 이른바, '국민소득' (National Income : NI) 또는 요소비용국민소득에 대한 백분율임.

2) 自營所得을 '勞動基準'으로 귀속처리한 귀속노동소득을 피용자보수에 다 합하여 계산 것임.

資料 : 1860~9년부터 1960~3년까지는 C.H.Feinstein, "Changes in the Distribution of the National Income in the United Kingdom Since 1860," in The Distribution of National Income, ed. J. Marchal and B. Ducros (Macmillan & Co., 1968), pp. 116-126의 <表 1>, <表 2>, <表 5> : 1964-8년부터 1969-73년까지는 J. King and P. Regan, Relative Income Shares (Macmillan, 1976), pp. 18-20의 <表 1>, <表 2>.

‘被傭者報酬’分配分 및 ‘廣意의 勞動所得’分配分의 세가지로 구분·표시한 것이다.³⁾ 우리는 同表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賃金’分配分은 1860~9년부터 1960~3년의 100여년 동안 놀라울 정도로 安定的이었다는 점이다. Kalecki 나 Keynes는 바로 이러한 ‘賃金’分配分의 변화형태를 보고 불변성가설을 주장하였다.

둘째, ‘被傭者報酬’分配分은 1860-9년부터 1969~73년의 110여년간에 23.7% 포인트 증가하였으며 ‘廣意의 勞動所得’分配分은 1910~4년부터 1969~73년의 60여년간에 20.3% 포인트 증가하는 등 이들 두 勞動所得分配分은 長期的으로 增加하였다는 점이다.⁴⁾

셋째, ‘被傭者報酬’分配分과 ‘廣意의 勞動所得’分配分의 期間別 變化패턴을 보면 이들 두 勞動所得分配分은 두 번의 世界大戰 直後의 기간중에 急増하였으며, 1950年代 이후로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表 2〉는 약 60여년간에 걸친 美國의 勞動所得分配分의 변화추이를 ‘被傭者報酬’分配分과 ‘廣意의 勞動所得’分配分의 두가지로 구분 표시한 것이다. 우리는 同表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被傭者報酬’分配分은 1900~9년부터 1954~63년의 60여년간에 12.9%포인트 증가하였으며 ‘廣意의 勞動所得’分配分은 동 기간중에 11.6%포인트 증가하는 등 이들 두 勞動所得分配分은 英國과 마찬가지로 모두 長期的으로 增加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이들 두 勞動所得分配分의 期間別 變化패턴은 英國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즉, 美國은 大恐慌 기간인 1930年代에 급증한 뒤 1930年代 이후로는 거의 증가하지 않고 있으며 두번의 世界大戰 直後에도 급격한 증가현상이 없다는 점이다.

3) 여기서 ‘賃金’分配分은 肉體勞動者의 노동에 대한 보수를 나타내는 ‘賃金’이 國民所得에서 차지하는 比率을, ‘被傭者報酬’分配分은 모든 被傭者의 노동에 대한 보수를 나타내는 ‘被傭者報酬’가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比率을, 廣意의 勞動所得’分配分은 被傭者報酬에 歸屬勞動所得을 합한 金額이 國民所得에서 차지하는 比率을 말한다.

4) 이와 같이 ‘賃金’分配分은 거의 不變이었는데도 불구하고 ‘被傭者報酬’分配分이 增加傾向을 보인 이유는 非肉體勞動者의 勞動에 대한 보수를 나타내는 ‘給料’分配分이 크게 증가한 데에 기인한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Feinstein (1968), p.119 參照.

< 表 2 >

美國의 勞動所得分配分의 ¹⁾ 變化推移, 1900-63.

연 도	구 분	' 費 용 자 보 수 ' 분 배 분	' 광 의 의 노 동 소 득 ' 분 배 분 ²⁾
1900 ~ 9		55.0	67.8
1905 ~ 14		55.2	67.2
1910 ~ 19		53.6	64.2
1915 ~ 24		56.9	67.6
1920 ~ 9		60.8	71.5
1925 ~ 34		64.5	73.6
1930 ~ 9		67.5	80.2
1929 ~ 38		66.6	80.2
1934 ~ 43		65.1	76.5
1939 ~ 48		64.6	74.4
1944 ~ 53		65.6	75.3
1949 ~ 58		67.3	77.3
1954 ~ 63		67.9	79.4

註: 1) < 表 1 >의 각주 1과 동일.

2) < 表 1 >의 각주 2와 동일.

資料: J.King and P.Regan, Relative Income Shares (Macmillan, 1976), 朴東雲·李重熙 共譯, 『相對的 所得分配 理論』(螢雪出版社, 1988.5), p.3의 < 表 3 >에서 引用 및 作成.

2. 長期的 變化傾向의 分析方法

앞에서는 勞動所得分配分의 長期的 變化傾向에 關係 不變性과 可變性의 두 가설이 대립 되어 있다는 점과 英國 및 美國의 勞動所得分配分의 長期的 變化推移를 간단히 살펴 보았다. 그런데 勞動所得分配分의 장기적 변화경향에 關係 論爭이 그치지 않고 오랜 기간 지속되는 이유의 하나는 勞動所得分配分이 不變 또는 可變이라고 할 때 그 比較의 基準이 무엇인가 에서 비롯되고 있다.

그러면 勞動所得分配分의 不變性 또는 可變性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比較의 基準 또는 方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여기에는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Keynes (1939)나 Ka1-

dor(1955) 등과 같이 勞動所得分配의 變化를 關聯變數의 變化와 비교하는 방법이며⁵⁾ 다른 하나는 Solow(1958)처럼 總體的인 勞動所得分配의 變化를 그 구성요인인 部門 또는 産業의 勞動所得分配 變化와 비교하는 방법이다.

이 중 Solow의 방법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떤 國民經濟가 n 개의 部門 또는 産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자. 이들 産業中 i 번째 産業의 勞動所得分配을 S_i , 그리고 i 번째 産業의 國民所得構成比를 π_i 로 놓으면 總體的인 勞動所得分配 (S)은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S = \sum_{i=1}^n \pi_i S_i \quad \dots\dots\dots (1)$$

(1)식은 총체적인 勞動所得分配이 개별산업의 勞動所得分配을 그 산업의 所得構成比를 가중치로 하여 加重平均한 것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時間이 경과하면 S_i 가 變化하게 되고, 그 결과 S 도 變化하게 된다. 이 경우 S_i 와 S 의 시간에 대한 實際分散 (actual variance)을 각각 $\text{var}(S_i), \text{var}(S)$ 로 나타내기로 하자. 이제 만일 S_i 가 相互 獨立의으로 變化한다고 가정하면 시간에 대한 S 의 理論分散 (theoretical variance), $\text{var}(S^*)$ 는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할 수 있다.

$$\text{var}(S^*) = \sum_{i=1}^n \pi_i^2 \cdot \text{var}(S_i) \quad \dots\dots\dots (2)$$

(2)식은 S_i 가 상호독립적으로 變化한다고 가정할 경우 시간에 대한 S 의 理論分散은 S_i 의 實際分散을 加重平均한 것과 같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2)식에 의하여 총체적인 勞動所得分配의 理論分散, $\text{var}(S^*)$ 를 계산한 다음에는 이를 총체적인 勞動所得分配의 實際分散, $\text{var}(S)$ 와 비교하여 統計的으로 有意한 差異가 존재하는지를 검토하면 된다. 그 결과 만일 이론분산과 실제분산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으면 총체적인 勞動所得分配의 變化는 개별산업의 勞動所得分配의 變化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그러나 두 分散間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면 총체적인 勞動所得分配의 變化는 개별산업의 勞動所得分配의 變化와 다르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5) Keynes (1939, p.48)는 그의 연구의 비교기간인 1880~1935년중에 거의 모든 것이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所得分配은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고 함으로써 暗黙的의기는 하지만 他變數와의 비교방법을 택하였으며, Kaldor (1955 p.83)는 技術變化·資本集約度의 變化·實質所得의 變化는 현저하였으나 상대적 所得分配은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고 함으로써 關聯變數와의 비교방법으로 상대적 所得分配의 불변성가설을 주장하였다.

요컨대, Solow의 방법은 總體的인 勞動所得分配分 變化의 不變性 또는 可變性에 관한 판단의 比較基準을 그 구성요소인 個別產業의 勞動所得分配分 變化에 憑으로써 全體의 變化를 部分的 變化와 比較하는 방법인 것이다.

3. 韓國의 勞動所得分配分の 變化傾向 分析

韓國의 勞動所得分配分에 관한 公式的 資料는 1953년부터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친 國民所得統計의 改編으로 인하여 1953년부터 최근까지의 一貫性있는 時系列 資料의 獲得에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여기서는 최근 韓國銀行이 新國民計定體系에 의해 編制한 『1970~1986 국민계정』(1987)을 이용하여 1970~85년중의 韓國 勞動所得分配分の 變化傾向에 관한 分析을 실시하기로 한다.

<表3>은 韓國의 經濟全體 및 製造業의 勞動所得分配分을 (i) 要素費用表示 國民所得에 대한 被傭者報酬의 比率(국민 '비용자보수' 분배분으로 약칭)과 (ii) 國內要素所得에 대한 被傭者報酬의 比率(국내 '비용자보수' 분배분으로 약칭)의 두가지로 定義·測定한 것이다.⁶⁾

우리는 同表로부터 국민 '비용자보수' 분배분은 1970~76년중에 大略 40% 내외에 머물렀으나 1977년부터 급속히 증가하여 1980년에는 50%를 넘어섰고 1985년에는 55%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 '비용자보수' 분배분은 前者와 유사한 變化趨勢를 보이고 있으나 그 水準은 大略 1~3%포인트 정도 낮음을 알 수 있다. 한편 製造業의 '비용자보수' 분배분은 經濟全體의 그것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1977~79년의 3년 사이에 8%포인트의 높은 증가를 이룩한 다음 1980년대 前半期에는 매우 安定的인 變化를 보이고 있다.

이와같이 韓國의 勞動所得分配分은 1970~85년의 15년 동안에 국민 '비용자보수' 분배분으로는 14.3%포인트, 국내 '비용자보수' 분배분으로는 12.6%포인트 증가하였다. 그리고 製造業의 '비용자보수' 분배분은 동 기간중에 11.1%포인트 증가하였다. 그러면 이와 같은 韓國 勞動所得分配分の 變化傾向은 可變的이라고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安定的이라고 보아야 하는가.

우리는 <表1>과 <表2>에서 英國의 '被傭者報酬' 分配分은 110여년간에 23.7%포인트 증가하였으며 美國의 被傭者報酬' 分配分은 60여년간에 12.9%포인트 증가한 것을

6) 勞動所得分配分の 定義 및 測定方法과 問題點에 관한 一般적인 論議와 韓國勞動所得分配分の 定義·測定과 관련된 資料上的 問題點 및 調整方案 등에 관해서는 李重熙(1988), pp.143~150 參照.

< 表 3 >

韓國의 勞動所得分配의 變化推移, 1970~85.

(단위 : %)

구분 연도	경 제 진 체		제 조 업
	국민 ' 피용자보수 ' 분배분 ¹⁾	국내 ' 피용자보수 ' 분배분 ²⁾	국 내 ' 피용자보수 ' 분배분 ²⁾
1970	40.5	39.5	46.8
1971	40.6	39.6	48.0
1972	40.1	38.9	44.6
1973	40.6	39.7	46.7
1974	39.1	38.2	48.8
1975	40.8	39.6	47.5
1976	41.9	40.9	49.3
1977	44.1	43.2	52.4
1978	46.8	45.8	55.0
1979	49.1	47.8	57.3
1980	52.4	50.1	57.3
1981	52.1	49.2	57.2
1982	53.9	50.8	57.3
1983	55.5	52.8	57.6
1984	54.9	52.1	57.9
1985	54.8	52.1	57.9

註:1) 요소비용 국민소득에 대한 피용자보수의 비율.

2) 국내요소소득에 대한 피용자보수의 비율.

資料 : 李重熙, 『相對的 所得分配의 理論과 實際』, 每經新書, 18 (每日經濟新聞社, 1988. 5), p.145의 < 表10 > 및 p.150의 < 表11 >.

보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英國과 美國의 勞動所得分配의 變化傾向과 比較해 보면 15년 사이에 13~14%포인트 증가한 韓國의 勞動所得分配은 분명히 빠른 增加勢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한 比較에는 經濟構造나 資料상의 차이로 인하여 오류가 수반될 수 있다. 따라서 다음에는 비록 15년이라는 比較적 짧은 기간이지만 1970~85년의 시계열 자료를 가지고 앞에서 살펴본 So low의 방법으로 韓國 勞動所得分配의 變化傾向을 分析해 보기로 하자.

< 表 4 >는 韓國의 ' 産業部門 ' 중에서 金融歸屬서비스를 제외한 産業部門의 個別産業別 勞

動所得分配分과 總體的인 勞動所得分配分을 보여주고 있다.⁷⁾ 또한 同表의 제일 마지막 行에는 개별산업 노동소득분배분 및 종체적 노동소득분배분의 實際分散을 보여주고 있다. 同表에서 보듯이 종체적 노동소득분배분의 實際分散, $\text{var}(S)$ 는 경상가중치 기준으로는 0.0282, 그리고 1977년 고정가중치 기준으로는 0.00061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個別產業의 노동소득분배분이 相互獨立的으로 변화한다고 가정하고 앞의 (2) 式에 의하여 總體的인 노동소득분배분의 理論分散, $\text{var}(S^*)$ 를 계산해 보면 0.00027이 된다.⁸⁾

이제 이와 같은 總體的인 노동소득분배분의 實際 變化가 그 구성요인인 個別產業 노동소득분배분의 變化에 비하여 可變的인지의 여부를 統計學的인 方法으로 검증해 보기로 하자. 이를 위해 歸無假說을 $H_0: \text{var}(S) = \text{var}(S^*)$ 로 설정하고 檢定統計量 $F = \text{var}(S) / \text{var}(S^*)$ 를 계산한 다음 F-檢定을 실시해 보았다. 그 결과 歸無假說, $H_0: \text{var}(S) = \text{var}(S^*)$ 는 경상가중치 기준으로는 1% 有意水準에서 기각되며, 고정가중치 기준으로는 5% 有意水準에서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⁹⁾

이러한 분석결과는 韓國 產業部門의 總體的 勞動所得分配分の 變化가 個別產業의 勞動所得分配分の 變化에 비하여 훨씬 可變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個別產業의 勞動所得分配分은 상호 밀접한 關係를 가지면서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¹⁰⁾

7) 여기서 '정부서비스부문'과 '민간비영리서비스부문'을 제외하고 '산업부문'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이들 두 부문은 정의에 의하여 국내요소소득과 피용자보수가 동일하고, 그 결과 노동소득분배분이 언제나 1로서 변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산업부문'중에서 '金融歸屬서비스部門'을 除外한 이유는 이 부문은 정의에 의하여 피용자보수가 0으로서 노동소득분배분은 언제나 0이 되어 변화하지 않기 때문이다.

8) 1977년 가중치를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9)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李重熙(1988), pp.161~163 參照.

10) 이와 같은 分析을 韓國製造業에 대해 실시해 본 결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李重熙(1988), pp.163~165 參照.

〈表4〉 한국의 산업별 노동소득분배분의 변화추이(1970~85)
(경상가격 기준)

산업 년도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점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 부동산 및 서비스업	사회 및 인 개 서비스업	산업부분의 소득분배분		노동 고정가중 치(1977년) 기준
	경상 기준	경상 기준	경상 기준	경상 기준	경상 기준	경상 기준	경상 기준	경상 기준	경상 기준	경상 기준	경상 기준	
1970	118(33.1)	692(1.4)	468(18.9)	348(1.3)	527(6.3)	288(19.2)	685(6.5)	256(9.4)	483(3.9)	318	338	
1971	114(33.9)	700(1.2)	480(18.8)	323(1.3)	520(5.5)	289(20.0)	684(6.3)	282(9.1)	488(3.9)	316	342	
1972	107(32.9)	758(1.1)	446(20.5)	411(1.3)	536(5.0)	288(20.8)	659(6.3)	290(8.2)	495(3.8)	311	334	
1973	122(30.4)	719(1.2)	467(23.1)	403(1.1)	561(5.2)	285(21.7)	648(6.5)	324(7.4)	484(3.4)	332	345	
1974	095(30.1)	647(1.4)	488(22.4)	759(0.5)	510(5.2)	268(23.6)	650(5.8)	311(7.7)	485(3.3)	318	339	
1975	097(31.2)	672(1.7)	475(22.8)	437(0.9)	539(5.7)	283(21.7)	642(5.8)	361(6.8)	521(3.4)	326	342	
1976	095(30.0)	657(1.4)	493(25.5)	368(1.0)	551(5.6)	272(20.0)	643(5.8)	317(7.4)	535(3.2)	330	340	
1977	108(28.5)	696(1.7)	524(25.2)	368(1.3)	593(6.7)	271(18.7)	622(6.6)	325(8.2)	552(3.1)	355	355	
1978	106(25.9)	729(1.6)	550(25.6)	376(1.2)	689(8.9)	276(18.0)	642(6.8)	323(8.8)	563(3.2)	386	370	
1979	119(24.3)	733(1.4)	573(25.6)	293(1.5)	714(10.0)	281(17.1)	642(7.2)	321(9.7)	582(3.2)	406	382	
1980	141(18.9)	702(1.9)	573(26.7)	246(2.1)	666(9.7)	286(16.8)	601(7.9)	324(12.3)	582(3.7)	420	382	
1981	126(20.8)	634(2.0)	572(26.7)	211(2.2)	643(8.5)	280(17.0)	568(8.7)	410(10.5)	584(3.6)	412	378	
1982	131(20.0)	679(1.8)	573(26.7)	225(2.1)	642(9.7)	280(17.5)	544(9.3)	545(8.9)	596(4.0)	430	391	
1983	151(18.3)	700(1.7)	576(26.8)	272(2.4)	650(10.1)	281(17.2)	623(9.2)	504(10.1)	604(4.2)	448	401	
1984	140(17.7)	716(1.6)	579(27.4)	171(2.9)	665(10.0)	279(17.4)	636(8.6)	466(10.2)	615(4.2)	443	396	
1985	137(17.8)	733(1.6)	579(26.4)	199(3.1)	676(10.0)	279(17.1)	633(8.3)	441(11.5)	614(4.2)	439	394	
분산 ²⁾	0.00030	0.00115	0.00253	0.01941	0.00484	0.00004	0.00135	0.00719	0.00247	0.00282	0.00061	

주: 1) 괄호 안의 수치는 국내요소소득의 구성비(%)임.

2) # - 1 = 15로 계산한 것임.

자료: 한국은행, 「1970~1986 국민계정」, 1987.

Ⅲ. 構造變化에 의한 勞動所得分配分の 變化效果 分析

勞動所得分配分은 産業構造와 就業構造의 變化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勞動所得分配分の 變化態는 이러한 構造變化의 측면에서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지난 20여년 동안 급속하게 변화한 한국의 산업구조와 취업구조의 변화에 의한 勞動所得分配分の 變化效果를 分析하기로 한다.

1. 産業構造 變化에 의한 勞動所得分配分の 變化效果 分析

産業構成 (industrial composition), 즉 産業構造가 變化하면 個別産業의 勞動所得分配分이 變化하지 않는 경우에도 경제전체나 포괄적인 산업을 대상으로 한 總體的인 勞動所得分配分은 變化한다. 왜냐하면 앞의 (1) 식에서 본 바와 같이 총체적인 勞動所得分配分은 사실상 個別産業의 勞動所得分配分을 그 産業의 所得比重으로 加重平均한 것과 동일하므로 가중치의 역할을 하는 産業別 所得比重이 變化하면 총체적인 勞動所得分配分은 變化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一定期間 중의 總體的 勞動所得分配分の 變化推移나 行態를 分析할 경우에는 노동所得分配分の 變化를 (i) 産業構造의 變化에 기인한 부분과 (ii) 個別産業의 勞動所得分配分 自體의 變化에 기인한 부분의 두가지로 分解하여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方法에는 Ferguson과 Moroney(1969)의 방법과 Thirlwall(1972)의 방법이 있는데, 이 중에서 前者가 보다 우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¹¹⁾ 여기서는 이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總體的인 勞動所得分配分은, (1) 식에서 본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S = \sum_{i=1}^n \pi_i S_i \dots\dots\dots (3)$$

11) Thirlwall의 방법은 基準年度와 比較年度의 두 연도를 선정하여 총체적 노동소득분배분의 변화를 産業構造 變化에 의한 效果와 個別産業에서의 勞動所得分配分 自體의 變化에 의한 效果의 두가지로 分解하는 방법이다. Thirlwall의 방법은 이해하기 쉽고 이용이 간단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어느 연도를 基準年度와 比較年度로 선정하느냐에 따라 분석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Ferguson과 Moroney의 방법도 Thirlwall의 방법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나 이 방법은 賃金과 生産性과 같이 경제학에서 많이 쓰는 概念을 이용하여 成長率의 형태로 분석하고 있고, 또 回歸分析과 같은 統計學的 技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Thirlwall의 방법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3)식의 S_i 는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S_i = \frac{w_i L_i}{Y_i} = \frac{w_i}{Y_i/L_i} = \frac{w_i}{y_i} \dots\dots\dots (4)$$

위 식에서 w_i, L_i, Y_i, y_i 는 각각 산업 i 의 평균실질임금, 노동자수, 평균소득, 노동자 1인당 평균소득(즉, 노동의 평균생산성)을 나타낸다.

그리고 (4)식은 다음과 같이 變化率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frac{\dot{S}_i}{S_i} = \frac{\dot{w}_i}{w_i} - \frac{\dot{y}_i}{y_i} \dots\dots\dots (5)$$

(5)식은 어떤 주어진 산업 i 에서의 勞動所得分配分의 變化率을 平均賃金變化率과 平均勞動生產性變化率의 差로서 나타내고 있다.

한편 (3)식을 變化率의 형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된다.¹²⁾

$$\frac{\dot{S}}{S} = \frac{\sum(S_i - S)\dot{\pi}_i}{S} + \frac{\sum\pi_i S_i [(\dot{w}_i/w_i) - (\dot{y}_i/y_i)]}{S} \dots\dots\dots (6)$$

(6)식에서 우변의 둘째항은 총체적인 노동소득분배분의 변화중에서 개별산업에서의 평균임금변화율과 평균노동생산성 변화율의 차이에 기인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이른바 產業內效果(witnin industry effect)를 나타내며, 첫째항은 산업구조의 변화에 기인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이른바 產業間效果(among industry effect)를 나타낸다.

우리는 위의 產業間效果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i) $S_i > S$ 이며 $\dot{\pi}_i > 0$ 인 경우 또는 $S_i < S$ 이며 $\dot{\pi}_i < 0$ 인 경우에는, 산업내 효과가 없더라도 총체적 노동소득분배분은 증가한다. 또한 유사한 論理로 (ii) $S_i > S$ 이고 $\dot{\pi}_i < 0$ 인 경우 또는 $S_i < S$ 이고 $\dot{\pi}_i > 0$ 인 경우에는, 산업내 효과가 없더라도 총체적인 노동소득분배분은 감소한다.

<表 5>는 이상과 같은 Ferguson 과 Moroney의 방법에 의하여 韓國의 經濟全體 및 製造業 노동소득분배분의 1970~85년중 變化要因을 產業內效果와 產業間效果의 두가지로 分解한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¹³⁾ 우리는 <表 5>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1970~85년중 韓國經濟全體-보다 정확히는 產業部門-의 노동소득분배분은 매년 2.97%씩 증가하여 왔으며, 이러한 增加效果 중에서 59.9%는 產業內效果(즉, 개별산업에서의 노동소득분배분 자체의 변화에 의한 효과)에 기인하였으며 나머지 40.1%는 產業間效果(즉, 산업구조의 변화에 의한 효과)에 기인하였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러한 분석결

12)(6)식의 도출과정은 附錄 I 參照.

13)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李重熙(1988), pp.151~155 參照.

과로 부터 경제전체의 總體的인 노동소득분배분이 변화한 가장 큰 원인은 産業內效果에 있었으나 産業間效果도 약 40%로서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勞動所得分配分の增加가 전적으로 非勞動所得分配分の 회생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둘째, 1970~84년중 韓國製造業의 노동소득분배분은 매년 0.76%씩 증가함으로써 경제전체에 비하여 매우 미미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이러한 增加效果 중에서 81.6%는 産業內效果에 기인하였으며 나머지 18.4%는 産業間效果에 기인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工業構造의 變化(즉, 제조업내에서 산업구조 변화)에 의한 노동소득분배분의 증가효과는 그리 크지 않으며, 대부분 개별산업의 노동소득분배분이 증가한 데 힘입어 제조업의 노동소득분배분이 미미하나마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表 5> 韓國의 勞動所得分配分の 變化要因 分解

(단위 : %)

구 분 \ 부 문	경 제 전 체 ¹⁾ , 1970~85	제 조 업, 1970~84
노동소득분배분의 추세 변화율	2.97 (100.0)	0.76 (100.0)
산업내 효과	1.78 (59.1)	0.62 (81.6)
산업간 효과	1.19 (40.1)	0.14 (18.4)

註 : 1) 생산성 개념이 모호한 '정부서비스부문' 과 '민간비영리서비스부문' 을 제외한 이른바 '산업부문' 임.

資料 : 李重熙, 『相對的 所得分配分の 理論과 實際』, 每經新書, 18 (每日經濟新聞社, 1988. 5), pp. 152 ~ 153, 244.

2. 就業 構造變化에 의한 勞動 所得分配分の 變化效果分析

就業構造, 즉 就業者 중에서 被傭者가 차지하는 비중이 변화하면 임금의 상대적 상승이 없어도 노동소득분배분은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노동소득분배분의 변화형태는 就業構造의 變化 측면에서도 分析해 볼 필요가 있다.

就業構造의 變化가 勞動所得分配分の 變化에 미치는 效果는 다음 식을 보면 알 수 있다.

$$S = \frac{w}{Y} = \frac{w}{y} \cdot \frac{L}{N} \dots\dots\dots (7)$$

위 식에서 w, y, L, N 은 각각 피용자의 평균임금, (피용자를 포함한) 취업자의 평균소득,

피용자수, 취업자수를 나타낸다.

(7) 식은 하나의 定義式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이로부터 '賃金/所得比率' (w/y)이 변화하지 않더라도 '被傭者/就業者比率' (L/N)이 변화하면 노동소득분배분은 변화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취업구조의 변화가 노동소득분배분의 변화에 미치는 이러한 효과는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가. 이는, Phillips(1960)와 같이, 노동소득분배분을 '피용자/취업자 비율'로 나누어 증으로써 就業構造의 變化效果를 調整하면 된다. 즉,

$$S' = \frac{W/Y}{L/N} = \frac{wL/yN}{L/N} = \frac{w}{y} \dots\dots\dots (8)$$

(8) 식은 취업구조 변화효과를 調整한 勞動所得分配分(S')은 다음 아닌 '임금/소득비율'과 동일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흔히 '임금 패리티 비율'이라고도 한다.

<表 6> 韓國의 勞動所得分配分, 被傭者/就業者比率, 賃金/所得比率의 變化推移, 1970~85.

(단위: %)

구분 연도	경 제 전 체			광 공 업		
	S	$\frac{L}{N}$	$\frac{w}{y}$	S	$\frac{L}{N}$	$\frac{w}{y}$
1970	39.5	38.9	101.5	48.3	71.3	67.7
1971	39.6	39.3	100.8	49.4	65.6	75.3
1972	38.9	38.4	101.3	46.3	71.9	64.4
1973	39.7	37.8	105.0	47.9	73.3	65.3
1974	38.2	38.9	98.2	49.8	76.7	64.9
1975	39.6	40.6	97.5	48.8	78.7	62.0
1976	40.9	41.4	98.8	50.1	77.8	64.4
1977	43.2	44.6	96.9	53.4	79.1	67.5
1978	45.8	46.6	98.3	56.0	80.4	69.7
1979	47.8	47.7	100.2	58.1	81.2	71.6
1980	50.1	47.3	105.9	58.2	80.0	72.8
1981	49.2	47.2	104.2	57.7	81.7	70.6
1982	50.8	47.6	106.7	58.0	81.3	71.3
1983	52.8	49.5	106.7	58.3	83.3	70.0
1984	52.1	52.9	98.5	58.6	85.8	68.3
1985	52.1	54.2	96.1	58.8	86.1	68.3

資料: 李重熙, 『相對的 所得分配分의 理論과 實際』, 每經新書, 18 (每日經濟新聞社, 1988. 5)p.157의 <表 14> 및 p.159의 <表 15>.

〈表6〉은 韓國經濟全體 및 鑛工業의 $S, L/N, w/y$ 의 1970~85년중 變化推移를 보여 주고 있다. 우리는 同表로 부터 경제전체나 광공업 모두 L/N 은, 비록 약간의 기복은 있으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w/y 는 뚜렷한 추세를 보이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統計學的인 方法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表6〉의 資料를 가지고 $S, L/N, w/y$ 의 時間趨勢方程式을 最小자승법으로 推定해 보았는데 그 結果를 要約하면 〈表7〉에서 보는 바와 같다.¹⁴⁾

〈表7〉 韓國의 勞動所得分配分, 被傭者/就業者比率, 賃金/所得 比率의 趨勢成長率, 1970-85
(단위: %)

구분 \ 부분	경제 전체		광 공 업	
	추세 성장률	유의 수준	추세 성장률	유의 수준
노동소득분배분 (S)	2.47	0.01	1.74	0.01
비용자/취업자 비율(L/N)	2.40	0.01	1.41	0.01
임금/소득비율 (w/y)	0.07	72.71	0.34	24.21

資料: 李重熙, 「相對的 所得分配分의 理論과 實際」, 每經新書, 18 (每日經濟新聞社, 1988. 5), pp. 157 ~ 159.

우리는 〈表7〉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經濟全體의 경우 S 와 L/N 의 趨勢成長率을 나타내는 回歸式의 기울기는 모두 0.01%의 水準에서 統計的으로 有意하다. 따라서 S 는 매년 2.47%씩 증가하여 왔으며 L/N 은 매년 2.40%씩 증가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w/y 의 趨勢成長率을 나타내는 回歸式의 기울기는 0.07%로 나타났는데, 비록 陽의 기울기를 가지고는 있으나, 有意水準이 72.71%로서 너무 높기 때문에 통상적인 의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추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1970~85년중 勞動所得分配分의 增加는 거의 전적으로 就業構造의 變化, 즉 被傭者數의 相對的 增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이러한 취업구조 변화효과를 조정하고 나면 노동소득분배분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둘째, 鑛工業의 경우도 경제전체와 마찬가지로 勞動所得分配分의 增加가 거의 전적으로 被傭者數의 相對的 增加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단, 鑛工業의 경우는 취업구조의 변화효과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就業構造의 變化에 의한 勞動所得分配分의 변화효과가 경제전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4)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李重熙(1988), pp. 157 ~ 159 參照.

Ⅳ. 産業組織과 勞動所得分配간의 關係分析 : EPM 競爭 理論에 의한 分析

勞動所得分配의 決定 및 變化에 영향을 미치는 主要原因으로는 相對的 要素價格 (또는 要素數量), 生産技術, 産業組織의 形態, 貯蓄 및 投資性向, 勞動組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중에서 生産 및 雇傭活動의 主體인 企業의 의사결정과 행동양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産業組織의 形態는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개된 主要 勞動所得分配 理論이 가정하고 있는 産業組織의 形態는 매우 다양하다. 예로서 Ricardo (1817)의 이론은 自由競爭의 産業조직을, 新古典學派의 이론은 完全競爭의 産業조직을, Kalecki (1938, 1954, 1971)의 이론은 不完全競爭의 産業조직을, Weintraub (1958)의 이론은 完全競爭과 不完全競爭이 共存하는 産業조직을 가정하고 있으며, Kaldor (1955)와 Pasinetti (1962)의 新케인즈學派의 이론은 産業조직에 관해 아무런 가정도 설정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최근에 새로운 勞動所得分配 理論을 정립한 Lydall (1979)은 “EPM 競爭의” 産業組織을 가정하고 있다.

이처럼 勞動所得分配에 관한 主要理論이 가정하고 있는 産業組織의 形態는 다양하므로, 어떤 理論을 잘 理解하고 使用하기 위해서는 그 이론이 어떠한 産業組織을 假定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만 한다. 여기서는 勞動所得分配의 決定 및 變化에 관한 여러 理論중에서 “EPM 競爭의” 産業組織을 가정하고 정립된 Lydall의 理論을 이용하여 韓國 製造業 勞動所得分配의 變化原因을 究明해 보기로 한다.

1. EPM 競爭의 産業組織과 勞動所得分配

Lydall이 제안한 “EPM 競爭”(Entry and Product Market competition), 즉 “進入 및 生産物市場 競爭”의 개념은 간단히 말해서 完全競爭의 成立條件의 하나인 完全知識(perfect knowledge)의 가정을 완화한 것이다. Lydall은 未來에 관한 완전지식이 불가능함은 말할 것도 없고 現在와 관련된 企業理論에 국한해 볼 때도 技術과 企業經營의 質에 관한 지식은 매우 불완전하다는 점을 들어 新古典學派의 企業理論 및 分配理論의 기초가 되고 있는 完全知識의 개념을 비판하고 있다.¹⁵⁾

15) 完全競爭 개념에 대한 Lydall의 비판의 논거에 대해서는 李重熙(1988), pp. 77~80 참조.

EPM 競争의 개념은 바로 이러한 완전지식의 가정, 그 중에서도 특히 現存技術과 企業經營의 質에 관한 完全知識의 가정을 완화한 것이다. 따라서 Lydall의 EPM 競争 개념은 이 두가지 점을 제외하고는 완전경쟁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EPM 競争은 간단히 말해서 技術과 資本市場은 不完全하지만 進入이 自由롭고 生産物市場은 競争的인 상태를 나타내는 개념이다.¹⁶⁾

그러면 이와 같은 EPM 競争의 産業組織下에서 勞動所得分配分은 어떻게 決定되고 變化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이를 위하여 먼저 노동자 1인당 平均實質附加價值 (v)와 노동자 1인당 平均實質賃金 (w)은 노동자수로 측정한 企業規模(L)¹⁷⁾와 각각 다음과 같은 형태의 函數關係가 존재한다고 가정하자.¹⁸⁾ 다음에서 B 와 A 는 상수이다.

$$v = BL^{\beta-1} \quad (\text{단, } B > 0, L \geq 1, \beta > 1) \dots\dots\dots (9)$$

$$w = AL^{\alpha-1} \quad (\text{단, } A > 0, L \geq 1, 1 < \alpha < \beta) \dots\dots\dots (10)$$

다음 企業規模別 企業體數의 分布를 나타내는 企業規模分布 (size distribution of firms)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파레토函數 (Pareto function) 형태를 이룬다고 가정하자. 다음에서 N 은 L 名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수를 나타내며 R 은 상수이다.

$$N = RL^{-\rho} \quad (\text{단, } R > 0, L \geq 1, \rho > 1) \dots\dots\dots (11)$$

이제 기업규모별 1인당 附加價值와 賃金を 나타내는 (9) 식과 (10) 식, 그리고 企業規模分布를 나타내는 (11) 식을 결합하면 다음과 같은 勞動所得分配分의 決定式을 도출할 수 있다.¹⁹⁾

$$S = \frac{W}{Y} = \frac{\rho - \beta}{\rho - \alpha} \cdot \frac{A}{B} \quad (\text{단, } \rho > \beta > \alpha > 1) \dots\dots\dots (12)$$

16) 勞動市場도 競争的인 것으로 가정된다.

17) 企業의 規模는 勞動者數 뿐만 아니라 產出, 出荷, 附加價值, 資產, 資本 등의 다른 기준으로도 측정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勞動所得分配分 決定式의 용이한 도출을 위하여 勞動者數를 기준으로 하여 企業規模를 논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의 實證分析에서는 附加價值를 기준으로 하여 企業規模를 측정할 것이다.

18) (9) 식은 企業規模 (L)가 증가함에 따라 노동자 1인당 平均實質附加價值(v)가 單調增加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10) 식은 企業規模(L)가 증가함에 따라 노동자 1인당 平均實質賃金도 單調增加하기는 하지만 노동자 1인당 平均實質附加價值 보다는 느리게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9) (12) 식의 도출과정은 附錄 II 참조.

그런데 EPM 競爭의 產業組織下에서 1인기업은 超過利潤은 말할 것도 없고 資本의 機會費用도 얻지 못하는 것으로 가정된다.²⁰⁾ 이러한 가정이 성립하면 위 식에서 $A=B$ 가 되어 (12) 식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S = \frac{W}{Y} = \frac{\rho - \beta}{\rho - \alpha} \quad (\text{단, } \rho > \beta > \alpha > 1) \quad \dots\dots\dots (13)$$

(13) 식은 EPM 競爭의 產業組織下에서의 勞動所得分配分은 企業規模別 附加價值隔차를 나타내는 파라미터 β , 企業規模別 賃金隔차를 나타내는 파라미터 α , 그리고 企業規模分布의 기울기(의 절대값)를 나타내는 파라미터 ρ 의 세가지에 의하여 決定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勞動所得分配分이 구체적으로 이들 세 파라미터와 다음과 같은 關係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rac{\partial S}{\partial \beta} < 0, \quad \frac{\partial S}{\partial \alpha} > 0, \quad \frac{\partial S}{\partial \rho} > 0 \quad \dots\dots\dots (14)$$

한편, 勞動所得分配分이 時間의 경과에 따라 증가할지 감소할지는 이들 파라미터가 어떻게 變化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에 관해 Lydall은 大小企業間 附加價值隔차를 나타내는 파라미터(β)는 産業化 初期段階의 경우 近代的 技術을 사용하는 大企業과 前近代的 技術을 사용하는 小企業 사이의 技術隔차가 크기 때문에 β 가 높지만, 産業化 後期段階에는 모든 규모의 기업들이 技術的으로 同質的이 되어 감에 따라 β 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²¹⁾ 한편 大小企業間 賃金隔차를 나타내는 파라미터(α)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β 가 장기적으로 감소하면 α 도 역시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끝으로 Lydall은 企業規模分布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파라미터(ρ)는 장기적으로 매우 安定的이나 大企業에의 生産集中現象이 深化됨에 따라 ρ 는 어느 정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2. EPM 競爭理論의 實證分析模型 定立

여기서는 이상과 같은 내용의 EPM 競爭理論을 實證的으로 분석할 수 있는 模型

20) 이에 관한 논거는 李重熙(1988), pp.84~87, 89~90 참조.

21) 이와 같이 EPM 競爭下에서 大小企業間에 技術隔차가 發生·調整되고, 그결과 β 가 産業化의 進行段階에 따라 달라지는 理由에 관해서는 李重熙(1988), pp.94~96 참조.

을 정립해보기로 하자. 이를 위해서는 먼저 (9)식과 (10)식에서 說明變數의 역할을 하는 企業規模를 勞動者數에서 附加價値로 변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勞動所得 分配分 決定式의 理論的 導出을 위해서는 노동자수를 기업규모로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지만 實證分析에서는 부가가치를 기업규모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기 때문이다.²²⁾

먼저 (9)식은 $L = V/v$ 의 관계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附加價値 基準으로 변환할 수 있다.²³⁾

$$v = B^{\frac{1}{\beta}} V^{\frac{\beta-1}{\beta}} \dots\dots\dots (9)'$$

그리고 (10)식은 $L = V/v$ 의 관계식 및 (9)'식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附加價値 基準으로 변환할 수 있다.²⁴⁾

$$w = AB^{\frac{1-\alpha}{\beta}} V^{\frac{\alpha-1}{\beta}} \dots\dots\dots (10)'$$

다음 確定的 關係로 표시된 (9)'식과 (10)'식을 각각 確率的 關係로 간주하고 양변에 自然對數를 취하여 線型模型으로 변환하면 다음과 같다. 이하에서 u 는 확률적 교란항을 나타낸다.

$$\ln v = \frac{1}{\beta} \ln B + \frac{\beta-1}{\beta} \ln V + u \dots\dots\dots (9)''$$

$$\ln w = \ln A + \frac{1-\alpha}{\beta} \ln B + \frac{\alpha-1}{\beta} \ln V + u \dots\dots\dots (10)''$$

만일 $b_0 = (1/\beta) \ln B$, $b_1 = (\beta-1)/\beta$, $a_0 = \ln A + [(1-\alpha)/\beta] \ln B$, $a_1 = (\alpha-1)/\beta$ 로 놓으면 위의 두 식은 다음과 같이 바뀌실 수 있다.

$$\ln v = b_0 + b_1 \ln V + u \dots\dots\dots (9)'''$$

$$\ln w = a_0 + a_1 \ln V + u \dots\dots\dots (10)'''$$

이제 위의 (9)'''식과 (10)'''식을 최소자승법으로 回歸分析하여 回歸係數 b_1 과 a_1 을 추정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파라미터 β 와 α 의 최소자승추정량 $\hat{\beta}$ 와 $\hat{\alpha}$ 는 다음의 관계식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22) 이에 대해서는 Lydall (1979), pp. 300 ~ 301 참조.

23) (9)'식의 유도과정은 附錄 III.1 참조.

24) (10)'식의 유도과정은 附錄 III.2 참조.

$$\hat{\beta} = -\frac{1}{(b_1 - 1)} \dots\dots\dots (15)$$

$$\hat{\alpha} = a_1 \hat{\beta} + 1 \dots\dots\dots (16)$$

그러면 다음에는 企業規模分布函數인 (11) 식의 파라미터 ρ 를 실증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살펴보자. 먼저 (11) 식에 부과되어 있는 制約條件, $\rho > 1$ 이 실증적으로도 충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1) 식을 수학적으로 同値인 다음 식과 같이 고쳐쓰기로 하자.

$$N = RL^{-(\rho-1)-1} \quad (\text{단, } R > 0, L \geq 1, \rho > 1) \dots\dots\dots (11)'$$

다음 (11)' 식을 앞에서와 같이 確率的 模型으로 간주하고 양면에 自然對數를 취하여 線型模型으로 변환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²⁵⁾

$$\ln N = \ln(R/L) - (\rho - 1) \ln L + u \dots\dots\dots (11)''$$

만일 $c_0 = \ln(R/L)$, $c_1 = -(\rho - 1)$ 로 놓으면 위식은 다음과 같이 바뀌 쓸 수 있다. 그런데 $\rho > 1$ 이므로 여기서 c_1 은 陰의 값을 가진다.

$$\ln N = c_0 + c_1 \ln L + u \dots\dots\dots (11)'''$$

이제 (11)''' 식을 最小자승법으로 回歸分析하여 回歸係數 c_1 을 추정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파라미터 ρ 의 最小자승추정량 $\hat{\rho}$ 는 다음의 관계식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hat{\rho} = 1 - c_1 \dots\dots\dots (17)$$

(17) 식에서 c_1 은 陰의 값을 가지므로 (17) 식의 $\hat{\rho}$ 는 1 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된다. 이는 곧 우리가 앞에서 설정했던 制約條件, $\hat{\rho} > 1$ 이 실증적으로 충족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25) (11)' 식의 유도과정은 附錄Ⅲ.3 참조.

〈表 8〉 제조업의 사업체 규모별 주요 경제지표 (1966, 1979, 1985)

연도	종업원 규모층별	사업체수 (개)	종업원수 (명)	급여액 (백만원)	부가가치 (백만원)	1인당 급여액 (천원)	1인당 부가가치 (천원)	이상누적 사업체수 (개)	사업체당 부가가치 (백만원)
1966	5~9명	12,728	76,880	3,546	11,475	46	149	22,718	1
	10~19	5,480	67,783	3,626	12,235	53	181	9,980	2
	20~49	2,805	78,847	4,378	15,143	56	192	4,500	5
	50~99	874	59,541	3,814	13,407	64	225	1,695	15
	100~199	452	58,371	3,740	14,143	64	242	821	31
	200~499	257	78,290	6,237	31,726	80	405	369	123
	500명이상	122	146,953	12,480	58,045	85	395	112	476
	계	22,718	566,665	37,821	156,174	68	276	-	7
1979	5~9명	11,915	75,884	72,073	176,620	950	2,327	31,804	15
	10~19	6,851	94,173	104,627	238,941	1,111	2,537	19,889	35
	20~49	6,482	204,918	248,690	570,088	1,214	2,782	13,038	88
	50~99	2,895	204,991	264,870	682,676	1,292	3,330	6,556	236
	100~199	1,829	256,031	341,234	919,028	1,333	3,590	3,661	502
	200~499	1,200	361,169	496,426	1,556,725	1,374	4,310	1,832	1,297
	500명이상	632	919,642	1,394,144	5,063,904	1,516	5,506	632	8,013
	계	31,804	2,116,808	2,922,064	9,207,982	1,380	4,350	-	290
1985	5~9명	14,125	94,518	174,852	413,252	1,850	4,372	44,037	29
	10~19	11,408	155,499	338,738	799,462	2,178	5,141	29,912	70
	20~49	10,143	320,146	788,559	1,925,198	2,463	6,014	18,504	190
	50~99	4,273	300,310	800,931	2,198,870	2,667	7,322	8,361	515
	100~199	2,235	311,282	883,167	2,763,191	2,837	8,877	4,088	1,236
	200~499	1,246	371,292	1,149,961	4,389,815	3,097	11,823	1,853	3,523
	500명이상	607	884,950	3,108,338	14,246,835	3,512	16,099	607	23,471
	계	44,037	2,437,997	7,244,546	26,736,623	2,972	10,967	-	607

자료 : 한국산업은행·경제기획원, 『광공업센서스보고서』, 1966 : 경제기획원,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1979, 1985.

〈表 9〉 EPM 競争模型의 세가지 파라미터의 推定結果, 1966, 1979, 1985

연도	구분	β	$\hat{\alpha}$	$\hat{\rho}$	제조업의 노동소득분배분
1966		1.2011	1.1173	2.1319	24.2%
1979		1.1637	1.0788	1.8327	31.7%
1985		1.2498	1.1142	1.9325	27.1%
변화율 (%) 및	1966~79	-3.1%	-3.4%	-14.0%	7.5%포인트
변화폭 (% 포인트)	1979~85	7.4%	3.3%	5.4%	-4.6%포인트

資料 : 李重熙, 『相對的 所得分配의 理論과 實際』, 每經新書, 18 (每日經濟新聞社, 1988.5), p.175.

3. EPM 競爭模型에 의한 韓國製造業 勞動所得分配의 實證分析

(1) 實證分析 資料 및 變數

이상과 같은 내용의 實證分析을 위해서는 企業規模別 企業體數, 勞動者數, 賃金, 附加價値에 관한 資料가 필요하다. 이러한 資料는 『광공업 센서스보고서』 및 『광공업 통계조사보고서』에서 찾아볼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이를 사용하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노동자 1인당 平均賃金(w)은 被傭者報酬 개념인 『보고서』상의 “급여액”을 ‘종업원수’로 나눈 것을 사용하였으며, 노동자 1인당 平均附加價値(v)는 『보고서』상의 “부가가치”를 ‘종업원수’로 나눈 것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9)²⁶⁾ 식과 (10)²⁶⁾ 식에서 獨立變數인 企業規模는 『보고서』상의 “부가가치”를 ‘사업체수’로 나누어 구한 事業體當 附加價値(V)를 사용하였다. 한편 (11)²⁶⁾ 식에서 從屬變數인 以上累積企業數(N)는 『보고서』상의 從業員規模 層別 事業體數로 부터 구한 以上累積事業體數를 사용하였으며, 獨立變數인 企業規模(L)는 從業員規模 層別 下限을 사용하였다.

<表 8>은 여기서 實證分析을 실시한 1966, 1979, 1985년의 3개 년도의 資料를 정리한 것이다.

(2) 實證分析 結果 및 解釋

<表 8>의 資料를 이용하여 (9)²⁶⁾, (10)²⁶⁾, (11)²⁶⁾ 식을 最小자승법으로 추정한 다음,²⁶⁾ 同 推定結果를 (15), (16), (17) 식의 關係를 이용하여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세가지 파라미터의 最小자승추정치를 구하면 다음의 <表 9>에서 보는 바와 같다.

우리는 위의 推定結果로부터 우선 (13) 식에서 설정하였던 條件式, $\rho > \beta > \alpha > 1$ 이 實證的으로 모두 성립됨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들 추정된 파라미터의 變化行態를 가지고 製造業 勞動所得分配의 變化原因을 구명하여 보기로 하자.

먼저 1966 ~ 79년 중의 파라미터의 變化추이를 보기로 하자. 우리는 동 기간중에 세가지 파라미터의 추정치 $\hat{\beta}$, $\hat{\alpha}$, $\hat{\rho}$ 가 모두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hat{\beta}$ 의 감소는 企業規模別 附加價値隔差가 감소하였음을 의미하며, $\hat{\alpha}$ 의 감소는 企業規模別 賃金隔差가 감소하였음을 의미하고, $\hat{\rho}$ 의 감소는 절대치로 표시한 企業規模分布函數의 기울기가 감소했다는 것으로서 大小企業間 企業規模隔差가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26)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李重熙(1988), p.174의 <表 18>, <表 19>, <表 20> 참조.

그러면 이와 같은 파라미터의 변화는 製造業 勞動所得分配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가. 우리는 (14) 식의 관계를 이용하면 1966~79년중에 이루어진 $\hat{\beta}$ 의 감소는 노동소득분배분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했으며, 반대로 $\hat{\alpha}$ 와 $\hat{\rho}$ 의 감소는 노동소득분배분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1966~79년중에 이루어진 製造業 勞動所得分配의 增加(7.5%포인트)는, EPM 競争理論에 의할 경우, 동기간중에 이루어진 企業規模別 附加價值隔差의 縮小에 의하여 주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에는 1979~85년중의 파라미터의 변화추이를 보기로 하자. 동기간중에 세가지 파라미터는 1966~79년과는 正反對의 變化行態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勞動所得分配分도, 1966~79년과는 正反對로, 동기간중에 감소(-4.6%포인트)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1979~85년중에 이루어진 製造業 勞動所得分配의 減少는, EPM 競争理論에 의할 경우, 同 期間중에 이루어진 企業規模別 附加價值隔差의 增加에 의하여 주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보다 根本的인 問題로 돌아가서 이와 같은 파라미터의 變化를 발생시킨 궁극적인 原因은 무엇이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hat{\beta}$ 는 1966~79년중에 감소하고 1979~85년중에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66~79년중에 $\hat{\beta}$ 가 감소한 것은 사실상 産業化의 初期段階였던 1966년에는 경제개발계획의 직접적인 혜택을 입어 急成長한 少數의 大企業만이 近代的인 生産技術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 多數의 中小企業은 여전히 前近代的인 技術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였으나 그 후 持續的인 經濟成長으로 인하여 中小企業의 生産技術도 점차 근대화되어 大小企業間의 二重構造的 技術隔差가 크게 감소한 데에 基因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이 勞動集約的 生産技術이 중심을 이루어 온 1960년대와 1970년대의 技術體系下에서는 大小企業間 技術隔差가 점차 감소하였으나, 1979~85년중에 同 隔差가 다시 擴大된 것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資本 및 技術集約的 産業 위주로 生産 및 技術體系가 개편되는 과정에서 大企業은 우월한 資金力을 바탕으로 하여 빠른 속도로 新技術을 도입·사용한 데에 基因한 것으로 보인다.²⁷⁾

27) 이와 같은 推論이 타당한지를 보기 위하여 $\hat{\beta}$ 의 變化行態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1966년에는 1.2011이었으나 1970년에는 1.2626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1975년에는 1.2300으로 감소하였으며 1979년에는 1.1637로 더욱 감소하였다. 그러나 1980년에는 1.2136으로 증가하였으며 1985년에는 1.2498로 더욱 증가하였다.

한편 $\hat{\alpha}$ 의 變化原因은 韓國 勞動市場의 性格變化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1966~79년중에 $\hat{\alpha}$ 가 감소한 것은 그간의 高度成長에 따른 持續的인 雇傭增加로 인하여 勞動市場이 만성적인 超過供給 상태에서 점차 벗어남에 따라 그동안 상대적으로 低賃金에 의존하던 中小企業의 賃金이 보다 빠르게 상승한 데에 基因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979~85년중에 同 隔差가 다시 擴大된 것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中小企業이 주축을 이루는 勞動集約的 輕工業의 成長이 둔화됨에 따라 中小企業의 賃金上昇은 상대적으로 정체된 반면, 大企業이 주축을 이루는 資本 및 技術集約的產業은 높은 성장을 보임에 따라 大企業의 賃金은 빠르게上昇한 데에 基因한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hat{\rho}$ 가 1966~79년중에 감소한 것은 1960~70년대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된 大企業 위주의 成長政策의 결과로 產業集中이 深化된 데에 基因한 것으로 보인다.²⁸⁾ 그러나 $\hat{\rho}$ 는 1979~85년중에 다시 낮아졌는데 이는 지나친 產業集中과 經濟力集中에 따른 폐해의 축소와 生産基盤의 擴大를 위해 최근 中小企業의 育成을 도모하고 있는 데에 基因한 것으로 보인다.

V. 結 論

本章에서는 지금까지의 主要 分析結果를 要約하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몇가지 政策的 시사점을 제시하기로 한다.

1. 要 約

(i) 많은 經濟學者들이 오랜기간동안 關心을 가져온 勞動所得分配分의 長期的 變化傾向에 관해서는 不變性과 可變性的 두가지 假說이 대립되어 왔다. 실제로도 ‘被傭者報酬’分配分과 ‘廣意의 勞動所得’分配分으로 본 英國과 美國의 勞動所得分配分은 長期的으로 增加傾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英國의 ‘賃金’分配分은 놀랍게도 1860~9년부터 1960~3년의 100여년동안 거의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勞動所得分配分의 長期的 變化傾向에 관해 언급할 경우에는 어떻게 定義되는 勞動所得分配分을 意味하는지를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이다.

28) 이에 관해서는 李重熙(1988), pp. 138~142 참조.

(ii) ‘被傭者報酬’ 分配分으로 본 韓國의 勞動所得分配分은 1970~85년의 15년 동안에 13~14% 포인트 增加하였다. 이러한 韓國 勞動所得分配分の 變化傾向은 1860~9년부터 1969~73년의 110여년간에 23.7% 포인트 增加한 英國과 1900~9년부터 1954~63년의 60여년간에 12.9% 포인트 增加한 美國의 ‘被傭者報酬’ 分配分の 變化傾向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빠른 增加勢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iii) 韓國 勞動所得分配分の 이러한 變化傾向의 可變性 여부를 統計學的인 方法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全體의 變化를 部分의 變化와 比較하는 Solow (1958)의 方法으로 분석해 본 결과 總體的인 勞動所得分配分の 變化는 그 構成要素인 個別産業의 勞動所得分配分の 變化에 비하여 매우 可變的인 것으로 나타났다.

(iv) 韓國 勞動所得分配分の 이러한 變化要因을 産業內效果(즉, 개별산업내에서의 노동소득분배분 자체의 변화에 의한 효과)와 産業間效果(즉, 산업구조의 변화에 의한 효과)로 分析해 본 결과 前者는 59.9%, 後者는 40.1%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우리는 勞動所得分配分이 增加한 主因은 개별산업에서의 노동소득분배분이 增加한 데에 있지만 산업구조의 변화에 의한 효과도 약 40%에 달해 결코 적지 않기 때문에 勞動所得分配分の 增加가 전적으로 非勞動所得分配分の 희생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v) 韓國 勞動所得分配分の 이러한 變化要因을 被傭者數의 相對的 增加에 의한 效果(즉, 就業構造의 변화에 의한 효과)와 賃金의 相對的 上昇에 의한 效果로 分解해 본 결과 勞動所得分配分の 增加는 거의 전적으로 前者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우리는 勞動所得分配分이 增加한 사실 그 자체만을 가지고 就業者에 대한 被傭者의 相對的 地位가 向上되었다거나 또는 非勞動所得分配分으로부터 勞動所得分配分으로의 ‘純粹한’ 分配上的 移動이 이루어졌다고 간주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目的을 위해서는 勞動所得分配分 그 자체 보다는 就業構造의 變化效果를 調整한 勞動所得分配分(즉, ‘賃金/所得比率’)을 이용하는 것이 소망스럽다고 할 수 있는데, 韓國의 ‘賃金/所得比率’은 1970~85년중에 統計的으로 有意한 增加趨勢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vi) 勞動所得分配分の 變化를 企業規模別 附加價值隔差와 賃金隔差, 그리고 企業規模分布라는 세가지 要因의 變化로 설명하는 Lyda 11 (1979)의 EPM 競爭理論을 韓國 製造業의 1966, 1979, 1985년의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實證分析한 결과, 製造業 勞動所得分配分이 1966~79년중에 增加하고 1979~85년중에 감소한 것은 企業規模別 附加價值 隔差가 1966~79년 중에 감소하고 1979~85년 중에 增加한 데에

主因이 있는 것으로 分析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附加價值 隔差의 變化가 발생한 窮極的인 原因은 產業化 過程에서 흔히 발생하는 大小企業間 技術隔差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勞動集約的인 生産技術이 주축을 이룬 1960 년대와 1970 년대의 技術體系下에서 工業化가 지속됨에 따라 大企業과 小企業의 技術이 同質化됨으로써 大小企業間 技術隔差는 사실상의 開發初期였던 1966 년에 비하여 開發後期였던 1979 년에 감소하였으나, 1980 년대에 들어서면서 부터 資本 및 技術集約的 產業 위주로 生産 및 技術體系가 改編되는 과정에서 大企業은 우월한 資金力을 바탕으로 하여 빠른 速度로 新技術을 導入·使用한 데에 비하여 小企業은 그렇지 못함으로써 大小企業間의 技術隔差가 새로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가 附加價值隔差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2. 政策的 示唆點

(i) 韓國 勞動所得分配의 增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賃金의 相對的 上昇에 의해서가 아니라 雇傭의 相對的 增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그동안 政府가 輸出主導型 高度成長政策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低賃金의 解消보다는 雇傭의 增大에 역점을 두어온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雇傭增大 優先政策은 韓國 勞動力的 큰 規模와 빠른 增加率을 감안해 볼 때 충분한 타당성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勞使紛糾의 主要原因이 低賃金 문제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의 勞動政策은 지금까지의 雇傭增大 一邊度政策에서 탈피하여 雇傭增大와 함께 賃金上昇도 적극 고려하는 方向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그간의 지속적인 經濟成長과 그에 따른 雇傭增加로 過剩勞動力이 많이 縮小됨에 따라 失業勞動者의 就業慾求 못지 않게 就業勞動者의 低賃金 脫皮 慾求가 해결해야 할 주요 當面課題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就業勞動者의 賃金上昇을 위해서는 얼마간의 雇傭減少를 代價로 지불하게 될 지도 모르며 그결과 就業勞動者와 失業勞動者간의 利害對立이라는 勞動者間의 갈등이 초래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多數의 就業勞動者의 임금인상욕구를 充足·解消시켜 주지 않고서는 원만한 勞使關係와 원활한 生産活動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失業勞動者의 就業慾求와 就業勞動者의 低賃金 脫皮 慾求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양자택일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한, 就業勞動者의 低賃金 脫皮慾求를 수용하는 方向으로

노동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오늘의 韓國經濟 現實이 高賃金を 위해 雇傭 增大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雇傭增大만으로는 勞動問題의 解決이 과거처럼 만족스럽지 못한 것도 업존하는 現實의 하나이므로 失業勞動者의 雇傭增大를 도모하면서도 就業勞動者의 賃金上昇에 각별한 關心과 努力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최근의 勞使紛糾에서 主要原因이 되고 있는 低賃金의 문제는 대부분 勞動者들의 相對的 貧困感과 밀접히 결부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의 勞動政策의 樹立·推進에 있어서는 勞動所得分配分 그 自體보다는 就業構造 變化效果를 調整한 勞動所得分配分, 즉 '賃金/所得比率'을 가지고 勞動者들의 相對的 地位의 改善與否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ii) 韓國製造業의 勞動所得分配分의 變化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企業規模別 附加價值隔差의 變化에 의하여 주도되었으며 그러한 부가가치격차를 발생시킨 근본적인 원인은 공업화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大小企業間 技術隔差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런데 大小企業間 附加價值隔差가 최근 擴大되고 있는 것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資本 및 技術集約的產業 중심으로서의 構造調整 政策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우월한 資金力을 바탕으로 新技術體系에 신속히 적응한 大企業과 그렇지 못한 小企業間의 技術隔差가 深化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資本 및 技術集約的產業 위주로의 構造調整政策이 추진된다고 하면 이러한 技術體系에서의 大企業과 小企業의 技術水準이 同質化될 때까지는 製造業 勞動所得分配分이 減少 또는 安定勢를 持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비록 長期的인 안목에서 볼 때 資本 및 技術集約的인 方向으로의 產業構造 改編이 불가피하다고 할지라도 韓國 勞動市場이 아직 供給過剩 상태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나치게 急速하고 過度한 產業構造의 改編은 삼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產業構造 改編의 內容에 있어서도 有望한 中小企業에 대한 資金支援의 擴充을 통하여 中小企業의 新技術 適應 能力과 速度를 培養·提高시켜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近代의 技術을 보유한 中小企業의 數가 크게 증가하여야만 대다수 중소기업에 상존하고 있는 低賃金이 生産性 向上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이들 中小企業에 의하여 競爭的 市場組織이 形成되어야만 市場支配力을 보유한 大企業에서 발생하기 쉬운 雇傭減少效果를 縮小·防止할 수 있어 總體的인 勞動者의 福祉가 向上될 것이기 때문이다.

부록 I. (6) 식의 유도

먼저 (3)식을 다음과 같이 풀어 쓴 다음 이를 (a)식이라고 하자.

$$S = \pi_1 S_1 + \pi_2 S_2 + \dots + \pi_n S_n \dots\dots\dots (a)$$

다음 (a)식의 가중평균 변화율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frac{\dot{S}}{S} &= \frac{\pi_1 S_1}{S} \left(\frac{\dot{\pi}_1}{\pi_1} + \frac{\dot{S}_1}{S_1} \right) + \frac{\pi_2 S_2}{S} \left(\frac{\dot{\pi}_2}{\pi_2} + \frac{\dot{S}_2}{S_2} \right) + \dots \\ &+ \frac{\pi_n S_n}{S} \left(\frac{\dot{\pi}_n}{\pi_n} + \frac{\dot{S}_n}{S_n} \right) = \left(\frac{\pi_1 S_1}{S} \frac{\dot{\pi}_1}{\pi_1} + \frac{\pi_2 S_2}{S} \frac{\dot{\pi}_2}{\pi_2} + \dots \right. \\ &\left. + \frac{\pi_n S_n}{S} \frac{\dot{\pi}_n}{\pi_n} \right) + \left(\frac{\pi_1 S_1}{S} \frac{\dot{S}_1}{S_1} + \frac{\pi_2 S_2}{S} \frac{\dot{S}_2}{S_2} + \dots + \frac{\pi_n S_n}{S} \frac{\dot{S}_n}{S_n} \right) \\ &= \left(\frac{S_1 \dot{\pi}_1}{S} + \frac{S_2 \dot{\pi}_2}{S} + \dots + \frac{S_n \dot{\pi}_n}{S} \right) + \left(\frac{\pi_1 \dot{S}_1}{S} + \frac{\pi_2 \dot{S}_2}{S} + \dots + \frac{\pi_n \dot{S}_n}{S} \right) \\ &= \frac{\sum S_i \dot{\pi}_i}{S} + \frac{\sum \pi_i S_i (\dot{S}_i / S_i)}{S} \dots\dots\dots (b) \end{aligned}$$

그런데 $\sum \dot{\pi}_i = 0$ 이라는 점과 $\sum S_i \dot{\pi}_i = 0$ 이라는 점을 이용하면 (b)식의 우변의 첫째항의 분자는 다음의 (c)식과 같이 쓸 수 있다.

$$\sum S_i \dot{\pi}_i = \sum (S_i - S) \dot{\pi}_i \dots\dots\dots (c)$$

왜냐하면 $\sum (S_i - S) \dot{\pi}_i = \sum (S_i \dot{\pi}_i - S \dot{\pi}_i) = \sum S_i \dot{\pi}_i - \sum S \dot{\pi}_i = \sum S_i \dot{\pi}_i$ 의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이제 (b)식의 우변 첫째항의 분자에는 (c)식을 대입하고 둘째항의 분자에는 (5)식식을 대입하면 (b)식은 (6)식과 같이 된다.

부록 II. (12) 식의 유도

먼저 본문에서의 (9), (10), (11) 식을 다시 쓰고 이를 각각 (a), (b), (c) 식이라고 하자.

$$v = BL^{\beta-1}; B > 0, L \geq 1, \beta > 1 \dots\dots\dots (a)$$

$$w = AL^{\alpha-1}; A > 0, L \geq 1, 1 < \alpha < \beta \dots\dots\dots (b)$$

$$N = RL^{-\rho}; R > 0, L \geq 1, \rho > 1 \dots\dots\dots (c)$$

이제 L 을 편의상 연속변수로 가정하고 기업규모분포함수인 (c) 식을 L 에 대해 미분하면 규모 L 에서의 기업의 밀도함수를 나타내는 식,

$$-\frac{dN}{dL} = \rho RL^{-\rho-1} \dots\dots\dots (d)$$

을 얻고 1인당 부가가치함수인 (a)식에 노동자수를 곱하면 기업규모별 부가가치를 나타내는 식,

$$vL = BL^{\beta} \dots\dots\dots (e)$$

를 얻는다. 그리고 (d)식과 (e)식을 곱하면 기업규모별 부가가치의 밀도함수를 나타내는 식,

$$\rho RL^{-\rho-1} BL^{\beta} = \rho RBL^{\beta-\rho-1} \dots\dots\dots (f)$$

을 얻는다. 이제 (f) 식을 모든 규모의 기업(즉, 최소기업인 1인기업에서부터 최대기업까지)에 대해 적분하면¹⁾ 일정 수준의 산업이나 경제 전체의 총부가가치 (Y)를 나타내는 다음 식을 얻는다.

$$Y = \frac{\rho RB}{\rho - \beta} \text{ (단, } \rho > \beta \text{)} \dots\dots\dots (g)$$

그리고 일정 수준의 산업이나 경제 전체의 총임금도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 즉, 1인당 임금함수인 (b)식에 노동자수를 곱하면 기업규모별 임금을 나타내는 식,

$$wL = AL^{\alpha} \dots\dots\dots (h)$$

註:1) $\rho > \beta$ 를 가정하고 (f) 식을 적분하면 다음과 같다.

$$Y = \int_1^{\infty} \rho RBL^{\beta-\rho-1} dL = \left. \frac{\rho RBL^{\beta-\rho}}{\beta-\rho} \right]_1^{\infty} = 0 - \frac{\rho RB}{\beta-\rho} = \frac{\rho RB}{\rho-\beta}$$

를 얻고, 이를 (d) 식에 곱하면 기업규모별 임금의 밀도함수를 나타내는 식,

$$\rho RL^{-\rho-1} AL^\alpha = \rho RAL^{\alpha-\rho-1} \dots\dots\dots (i)$$

을 얻는다. 다음 (i) 식을 모든 규모의 기업에 대해 적분하면²⁾ 일정수준의 산업이나 경제전체의 총임금(W)을 나타내는 다음 식을 얻는다.

$$W = \frac{\rho RA}{\rho - \alpha} \dots\dots\dots (j)$$

이제 (g) 식과 (j) 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상대적 노동소득분배분의 결정식을 얻을 수 있다.

$$S \equiv \frac{W}{Y} = \frac{\rho - \beta}{\rho - \alpha} \cdot \frac{A}{B} \dots\dots\dots (k)$$

부록Ⅲ. (9)', (10)', (11)'' 식의 유도

1. (9)' 식의 유도

먼저 (9) 식을 다시 쓰고 이를 (a) 식이라고 하자.

$$v = BL^{\beta-1} \dots\dots\dots (a)$$

다음 (a) 식의 L에 $L = V/v$ 를 대입하여 정리하면 (b) 식과 같이 된다.

$$v = BV^{\beta-1} v^{-(\beta-1)} \dots\dots\dots (b)$$

다음 (b) 식의 양변에 $v^{(\beta-1)}$ 을 곱하여 정리하면 (c) 식과 같이 된다.

$$v^\beta = BV^{\beta-1} \dots\dots\dots (c)$$

끝으로 (c) 식의 양변에 $1/\beta$ 승(乘)을 하면 (9)' 식이 된다.

註:2) 위에서 $\rho > \beta$ 로 가정하였고 (b)식에서 $\beta > \alpha$ 로 가정하였으므로 $\rho > \alpha$ 이다. 따라서 $\rho > \alpha$ 로 가정하고 (i) 식을 적분하면 다음과 같다.

$$W = \int_1^\infty \rho RAL^{\alpha-\rho-1} dL = \left[\frac{\rho RAL^{\alpha-\rho}}{\alpha-\rho} \right]_1^\infty = 0 - \frac{\rho RA}{\alpha-\rho} = \frac{\rho RA}{\rho-\alpha}$$

2. (10)' 식의 유도

먼저 (10)식을 다시 쓰고 이를 (a) 식이라고 하자.

$$w = AL^{\alpha-1} \dots\dots\dots (a)$$

다음 (a) 식의 L에 $L = V/v$ 를 대입하여 정리하면 (b)식과 같이 된다.

$$w = AV^{\alpha-1} v^{-(\alpha-1)} \dots\dots\dots (b)$$

다음 (b) 식의 v에 (9)' 식을 대입하여 정리하면 (10)' 식이 된다. 즉,

$$\begin{aligned} w &= AV^{\alpha-1} v^{-(\alpha-1)} = AV^{\alpha-1} \left(B^{\frac{1}{\beta}} V^{\frac{\beta-1}{\beta}} \right)^{-(\alpha-1)} \\ &= AV^{\alpha-1} B^{-\frac{(\alpha-1)}{\beta}} V^{-\frac{(\beta-1)(\alpha-1)}{\beta}} = AB^{\frac{1-\alpha}{\beta}} V^{(\alpha-1) - \frac{(\beta-1)(\alpha-1)}{\beta}} \\ &= AB^{\frac{1-\alpha}{\beta}} V^{\frac{(\alpha-1)(\beta - (\beta-1))}{\beta}} = AB^{\frac{1-\alpha}{\beta}} V^{\frac{\alpha-1}{\beta}} \dots\dots\dots (10)' \end{aligned}$$

3. (11)'' 식의 유도

먼저 (11)' 식을 확률적 모형으로 고쳐 쓰고 이를 (a) 식이라고 하자.

$$N = RL^{-(\rho-1)-1} e^u \dots\dots\dots (a)$$

다음 (a) 식의 양변에 자연대수를 취하여 정리하면 (11)'' 식과 같이 된다. 즉,

$$\begin{aligned} \ln N &= \ln R - (\rho-1) \ln L - \ln L + u \\ &= \ln(R/L) - (\rho-1) \ln L + u \dots\dots\dots (11)'' \end{aligned}$$

參 考 文 獻

1. 統計 資料

- 경제기획원.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연도.
_____. 『광공업센서스보고서』. 각 연도.
_____.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 연도.
노동부.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 각 연도.
한국은행. 『1970—1986 국민계정』. 1987.

2. 論文 및 著書

- 朴東雲·金愛實. 「韓國經濟와 勞動所得 分配率의 變化」. 『經濟學研究』, 第29輯 (韓國經濟學會, 1981.12): 145-176.
- 朴東雲·李重熙 共譯. 『相對的 所得分配 理論』, 螢雪出版社, 1988.
- 朴炬求·朴世逸. 『韓國의 賃金構造』. 韓國開發研究院, 1984.
- 裴茂基. 「所得分配」. 邊衡尹·金潤煥 編, 『韓國經濟論』, 裕豐出版社, 1977.
- _____. 「韓國의 機能的 所得分配와 分配率 推計」. 『經濟論集』, 第23卷 第4號 (서울大學校 經濟研究所, 1984.12): 389-418.
- 李重熙. 「相對的 所得分配의 決定과 變化에 관한 研究: 產業組織 側面에서의 分析을 中心으로」. 經濟學 博士學位 論文, 檀國大學校, 1987.
- _____. 『相對的 所得分配의 理論과 實際』. 每經新書, 18, 每日經濟新聞社, 1988.
- Bronfenbrenner, M. "A Note on Relative Shares and the Elasticity of Substitu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8 (June 1960): 284-287.
- _____. Income Distribution Theory. Chicago: Aldine, 1971.
- _____. "Ten Issues in Distribution Theory." In Modern Economic Thought, ed. S. Weintraub. Pennsylvan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77.
- Davidson, P. Theories of Aggregate Income Distribution. New Jersey: Rutgers University Press, 1959.
- Feinstein, C.H. "Changes in the Distribution of the National income in the United Kingdom Since 1860." In The Distribution of

- National Income, eds. J. Marchal and B. Ducros
London : Macmillan, 1968.
- Ferguson, C.E. The Neoclassical Theory of Production and Distribution.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9.
- Ferguson, C.E. and Moroney, J.R. "The Sources of Changes in Labor's Relative Share : A Neoclassical Analysis." Southern Economic Journal, 35 (April 1969) : 308-322.
- Gallaway, L.E. "The Theory of Relative Share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78(November 1964) : 574-591.
- Grant, A. "Issues in Distribution Theory : The Measurement of Labor's Relative Share, 1899-1929."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45 (August 1963) : 273-279.
- Hahn, F.H. The Share of Wages in the National Income. London : Weidenfeld and Nicolson, 1972.
- Howard, M.C. Modern Theories of Income Distribution. London : Macmillan, 1979.
- Johnson, H.G. The Theory of Income Distribution. London : Gray-Mills Publishing, 1973.
- Kaldor, N. "Alternative Theories of Distribution." Review of Economic Studies, 23 (1955) : 83-100.
- Kalecki, M. "The Determinants of Distribution of the National Income." Econometrica, 6 (April 1938) : 97-112.
- _____. Theory of Economic Dynamics. London : George Allen and Unwin, 1954.
- _____. Selected Essays on the Dynamics of the Capitalist Economy, 1933-1970.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1.
- Keynes, J.M. "Relative Movement of Real Wages and Output." Economic Journal, 49 (March 1939) : 34-51.
- King, J.E. (ed.) Readings in Labor Economics.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1980.

- King, J. and Regan, P. Relative Income Shares. London : Macmillan, 1976.
- Klein, L.R. and Kosobud, R.F. "Some Econometrics of Growth : Great Ratios of Economic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75 (May 1961) : 173 - 198.
- Kravis, I. B. "Relative Income Shares in Fact and Theory." American Economic Review, 49 (December 1959) : 917 - 949.
- Lydall, H. A Theory of Income Distribution. Oxford : Clarendon Press, 1979.
- Marchal, J. and Ducros, B. (eds.) The Distribution of National Income. London : Macmillan, 1968.
- Pasinetti, L.L. "Rate of Profit and Income Distribution in Relation to the Rate of Economic Growth." Review of Economic Studies, 29 (October 1962) : 267-279.
- _____. Growth and Income Distribution.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4.
- Pen, J. Income Distribution. Trans. T.S. Preston. London : Allen Lane, 1971.
- Phelps Brown, E.H. and Hart, P.E. "The Share of Wages in National Income." Economic Journal, 62 (June 1952) : 253-277.
- Phillips, J.D. "Labour's Share and Wage Parity."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42 (May 1960) : 164-174.
- Ranadive, K.R. Income Distribution : The Unsolved Puzzle.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 Ricardo, D. On the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 In Works and Correspondence of David Ricardo, Vol. 1, ed. P. Sraffa.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1.
- Robinson, J. "The Theory of Distribution." In J. Robinson. Collected Economic Papers, Vol. 2. Oxford : Blackwell, 1960.
- Rothschild, K.W. "Some Recent Contribution to a Macro-Economic Theory of Income Distribution." Scottish Journal of Political Econ-

omy, 8 (October 1961) : 173-199.

Solow, R.M. "A Skeptical Note on the Constancy of Relative Shares."

American Economic Review, 48 (September 1958) : 618-631.

_____. "Distribution in the Long and Short Run." In The Distribution of National Income, eds. J. Marchal and B. Ducros. London : Macmillan, 1968.

Stigler, G. J. Production and Distribution Theories : The Formative Period. New York : Macmillan, 1941.

Thirlwall, A.P. "Changes in Industrial Composition in the U.K. and the U.S. and Labor's Shares of National Income, 1948-1969." Bulletin of the Oxford University Institute of Economics and Statistics, 34 (1972) : 373-382.

Weintraub, S. An Approach to the Theory of Income Distribution. Philadelphia : Chilton Co., 1958.

_____. Modern Economic Thought. Pennsylvania :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77.